

ROUTES

노선도 8월호
The August Issue

1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노선도』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입니다. 전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 등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노선도』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발행되며 유통망에 참여하는 참여 거점에 독점적으로 배포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행사입니다. 2000년 제1회 행사 이래로,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미디어, 도시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색해왔습니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하루하루 탈출한다》라는 제목하에 도피주의를 다시 생각합니다.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는 수단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내가 사는 세계와 만나고, 타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도피주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하루하루 탈출한다》의 본 전시는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전시 개막 전인 8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선보입니다.

www.mediacityseoul.kr
@seoulmediacitybiennale
#비엔날레유통망
#하루하루_탈출한다
#One_Escape_at_a_Time

표지이미지: DIS, 〈기본소득: 이성애자의 트루바다〉 스틸이미지, 2018.
작가와 런던 프로젝트 네이티브 인포먼트 제공.

브리스 엘스페제, 〈바디 더블 3〉 스틸이미지, 1995. 작가 제공.



하루하루 탈출한다

예술감독 웅 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웅 마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서 동시대 미술 및 유망 창작
분과의 큐레이터로 최근까지 재직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 M+에서 무빙 이미지 분과의 큐레
이터로서 무빙 이미지 소장품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
았다.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의 공동 큐레이터를 두
번 역임했다(2009, 2013).

도피주의_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탈출의
형태가 있나? 그런 탈출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많은 사람처럼, 나도 온라인으로 뭔가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긴다. 아마 지난 한 해에는 그 빈도가 더 높았을 거다.
거듭되는 봉쇄령으로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오로지 도피하기 위해서만
무언가를 시청하지는 않는 것 같다. 내가 보는 TV 프로그램과
영화, 동영상 대부분은, 비록 코미디 풍자 같은 오락적인
것일지라도, 항상 어느 정도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미디어가 진지하거나 중요한 주제를
더욱 더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태도와
방법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비엔날레의 모양을
처음 잡아갔을 때에도 이런 호기심이 큰 배경으로 작동했었다.

개인적으로는 소셜미디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요즘엔 소셜미디어가 도피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때때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만,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우리 현실을 반영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영화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는
그게 아무리 허구적이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뿌리를
둔다. 그에 반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현실은 단지 '구성물'일
따름이다.

사실 책을 더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항상 내세우는 핑계지만, 요즘의 독서는 항상 일과
결부되어 있다. 다시 독서를 즐길 방법을 찾아야겠다.

도시_도시에서의 삶과 그 맥락이 큐레이터로서의 당신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난 정말 도시 사람이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도시에서의 삶이 내 관점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전시를 머릿속에서 그릴
때의 시각적인 면이나 공간감에는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기획하는 전시는 주로 군더더기가 없고 밀도가
낮은 편이라, 도시에서의 내 경험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굉장히
번잡하고 인구 밀도도 높은 도시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인 투안 이푸는 『도피주의』란 책에서,
도시 사람들은 전원예에 대해 환상을 품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뭔가 다르고 아름다운 곳, 일상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곳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만든 전시는 말하자면 나에게
'전원' 같은 것이 아닐까?

무빙이미지_커리어 전반에 걸쳐서 무빙이미지라는
형식에 집중했는데, 무빙이미지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는가?

나는 항상 영화를 좋아했다.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하루에 영화를 네다섯 편씩 보러 간
기억이 난다. 그때의 열정이나 애정이 지금까지 연장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내러티브 면에서나 시각적인 면에서나,
무빙이미지는 스토리텔링을 확장할 뿐 아니라 몰입을
강화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 특히 매력을 느낀 것 같다.

하나 덧붙이자면, 무빙이미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으려는 원칙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편이다. 뮤직비디오와 텔레비전 광고도 영화나 강렬한 비디오
작업만큼 흥미로울 수 있다고 본다. 전시 방식을 고민할 때는
당연히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언제나 어디서나_홍콩, 파리 그리고 현재 서울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과
세계화와 대해 느낀 바가 있는지?

여러 지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과분한 일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화'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도 한다. 실제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릴 수 있지만, 사실 세계화라는 관념을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다. 무역 같은 분야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서구화'의 강화다. 이는 달리 말해 순화된 식민주의고,
식민주의의 유산이다.

하지만 더 젊은 세대를 보면 희망이 생긴다. 아시아의 팝
밴드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유럽에 사는 한 어린 여자아이를
아는데, 한국이나 아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케이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 교류와 영향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나아가 동등해진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보라고 느낀다.

협업_예술가/창작자와 협업하면서 어떤 영감을 받는가?

'영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다. 나는
예술가들과 함께 일하며 무언가 구현해내는 걸 좋아한다.
어떤 일을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나한테는 중요한
것 같다. 어쩌면 연대에 대한 약간의 낭만적인 관념이 있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
큐레이터들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낭만화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한다.

진행_이지원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백지숙은 제9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와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퍼블릭 스토리》(2013-2014)의 예술감독이었으며,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티스틱 디렉터(2011-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관장과 인사미술공간의 프로젝트 디렉터를 역임했다(2005-2008).

비엔날레_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비엔날레이다. 시민들이 비엔날레를 관람할 때 미술관의 다른 전시에 비해 더 관심을 두고 볼만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주최하는 비엔날레로 알고 있다. 그만큼 미술관이라는 제도와 비엔날레라는 격년제 행사가 서로 어떻게 교차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미술관은 기관의 단단한 틀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다. 반면에 비엔날레에는 동시대 세계 미술의 개별 현장과 실시간으로 접속하면서, 이런 관성이 타성화되지 않도록 돌파하려는 힘과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믿는다. 특히 이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현대미술 축제의 시간을 미술관 안팎을 가로지르며 연장하고, 가상과 실재의 공간을 넘나들며 마이크로 사이트 곳곳에 기억을 축적해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SF와 스토리텔링_서울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하기 전, 2016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기도 했다. 당시 SF의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주목한 계기는 무엇인가?

SF라는 장르 내지는 문화를 주목했던 몇 가지 앵글이 있었다. 직관적으로는 유독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SF가 이토록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단순히 말해 지역 현실이 더 SF 같아서 굳이 별도의 예술적 상상이 필요 없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모든 SF가 리얼리즘으로 읽혀서 결국 밋밋해지기 때문인가? 자문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SF 내러티브의 유행과 맞닥뜨리면서 이 또한 무슨 변화인가 계속 궁금해하고 있다. 한편, SF야말로 현대미술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어떤 급진적 단절의 상상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미술과 달리 시간성을 배치하는 오래된 모더니즘의 편견에 도전해왔다는 점에서, 현대미술의 신종 언어를 발명해가는 비엔날레 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미술과 탈출_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관을 찾아 미술을 보거나 경험하는 것이 어떤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보는가?

클레어 L. 에반스는 '내일의 건축물, 미술, 과학소설 그리고 미디어시티'라는 글에서 SF는 탈출로 명성을 얻지만, 실제 SF의 물리학은 엄격하다고 말한다. 급진적 단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SF는 이 세계에서 출발하기 위해 세계에 대해 인지해야만 하며 해결책은 필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알려져야 한다고 말할 때, 나는 SF를 그대로 미술로 대체해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미술관은 일단, 일상으로부터 탈출이자 도피이지만, 그리고 나서 과연 이 탈출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꼼꼼하게 탐색할 수 있는 영토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서울시립미술관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네트워크_이번 비엔날레의 유통망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역시 서소문의 본관 외에도 서울 곳곳에 분관을 두고 있는 네트워크형 미술관이다. 이렇게 여러 장소를 연결하고, 다양한 관객층과 교류하는 미술관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오늘 현재 서소문본관과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그리고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와 세마창고, 세마벙커, 백남준기념관이 서울시립미술관의 기관들로 서울의 여러 지역을 관통하며 연결하고 있다. 내년 미술아카이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이 연달아 개관할 예정인데, 이들 신규분관도 상상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화한 행정 프로그램과 학예적 활동을 통해 유기적 연결망을 가동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다양한 관객층이 여러 장소를 '트랜스' 하며 미술관의 스토리텔링에 반응하고 있으며, 너무 늦지 않게 관객 연구도 때맞춰 기획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_2000년 인사미술공간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해온 지 이제 20년이 넘었다. 큐레이터로서, 그 사이 서울이란 도시와 서울의 미술 활동이 맞이한 여러 변화 중 관심 있게 바라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9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6) 개막식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마감하고 나서 혼자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응 마 예술감독이 《하루하루 탈출한다》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 곳곳으로 침투하는 비엔날레를 제안한 만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 연기된 올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성년식을 정식으로 통과하고 나면 이십 년 사이의 변화가 보다 명료해질 테니까.

진행_이지원

도피주의



올리버 라릭, <사이> 스틸이미지, 2018.
작가와 베를린 타냐 레이튼 제공.

두 편의 드라마를 소개하고자 한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원 데이 앳 어 타임(One Day at a Time)>이라는 제목의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다. 이 드라마는 백인 싱글맘의 육아 이야기를 담아냈다. 2017년에 들어서서, 동명의 시트콤이 제작된다. 원작과 다르게, 이 드라마는 쿠바계 이민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인종과 젠더, 계급의 문제를 웃음과 함께 담아냈다.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비단 제목뿐만이 아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웃게 만들고,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전유하며, 미디어 앞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모은다. 그리고 올해,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제목은 바로 이 두 편의 드라마에서 따온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이다.



참여작가 림기웅. 작가 제공.

많은 것은 단지 제목만이 아니다. 비엔날레는 <원 데이 앳 어 타임>과 같은 대중문화의 도피주의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날의 미디어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작은 창이다. 모두 대중문화의 오락성 앞에서 각자의 환상을 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 준비는 한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열망의 산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드라마가 재현하는 여러 배역과 그보다 많은 시청자가 꿈꾸는 몽상의 수는 도피주의가 가지는 다채로운 가능성의 수와 일치한다.

그렇기에 비엔날레는 한두 사람의 비밀기지만이 아니라 대탈출이 일으키는 도피주의의 강력한 역류에도 주목한다. 비엔날레가 초대한 마흔한 명(팀)의 작가들은 대중미디어가 보여주는 이 복잡다단한 표정을 눈여겨보고, 하나하나 재료로, 방법으로, 목적으로 삼으며 동시대 이슈를 전유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팝과 만화를 재료로 삼고, 텔레비전과 3D 스캐닝을 레시피로 삼으며, 미디어의 빛과 그림자를 식탁에 올린다.

비엔날레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문화의 도피주의를 가지고 미술관 안팎에서 새로운 만찬을 선보일 준비가 되었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탈출을 꿈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2000년, 첫 번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열렸다. 《도시: 0과 1 사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비엔날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의 이진법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삼았다. 이에 열한 번째를 맞이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되묻는다. 당시의 이진법으로 우리의 경험이 여전히 이해될 수 있느냐고. 0과 1 사이의 비엔날레 이후, 대중문화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도피처를 제안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19로 잠식된 2020년과 2021년 사이의 오늘날 유일한 위안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미디어 앞에서 하루하루 탈출할 준비를 하는 우리를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가올 비엔날레가 그러하듯이.

글_이문석

참여작가 류한솔

본인과 그동안의 작업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평소에 신체 변형과 관련된 촉각적인 상상력에 관심이 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그로테스크한 상황을 포착하고 그 장면 안에서 모순되지만 공존하는 공포와 유머를 사용하며, B급 고어영화와 만화의 어법을 차용한다. 주로 내 삶 속에서 느낀 인상, 연상, 심상과 신체를 훼손시키는 상상력을 연결해 허구적이고 극단적으로 과장한 영상과 드로잉 작업을 해왔다.

이번 비엔날레 참여작인 〈버진 로드〉(2021)는 어떤 작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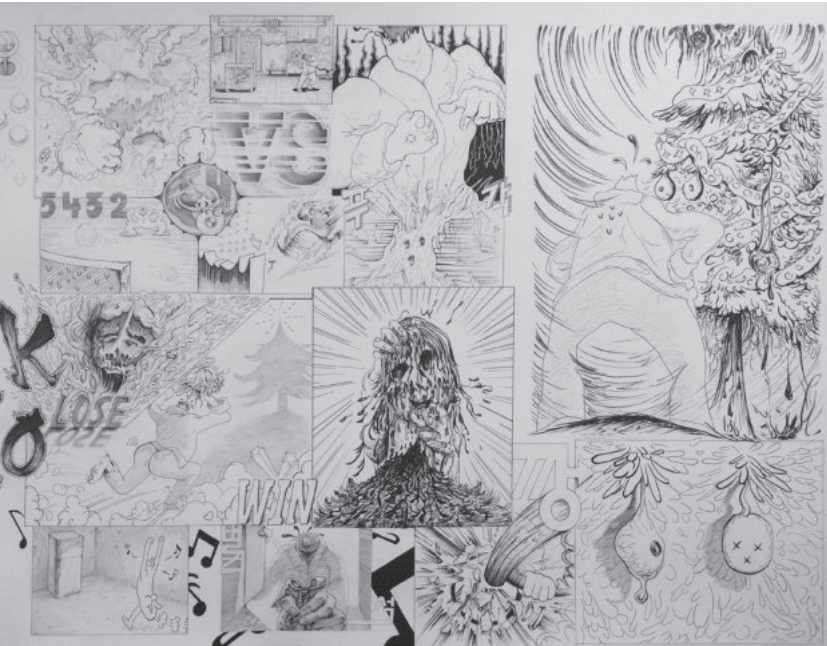
홀로 자신의 몸을 반으로 갈라 결혼식을 올리는 내용의 영상작업이다. 아침 드라마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을 보면 대부분 마지막 화에 이야기가 끝날 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신호로 결혼식을 사용하더라. 그걸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싶었다.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환각을 강요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혼의 압박, 성공한 삶에 대한 압박이 유튜브의 감동 포르노나 동기부여, 자기계발 영상들과 묘하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았다. 간절히 원하는 듯해서 접근하지만, 알고 보면 대상과 더 멀어지고 괴리되는 지점이 있다. 원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금방 휘발되는 자기 위로에 불과하기도 하고 정말 경이롭기도 하고 피상적이기도 한 분열증적 부분들, 파편적으로 서로 튕겨 나가는 듯한 지점을 말이다. 그것들을 허술하고 과장된 B급 코드와 감성의 어법으로 제작하였다.

드로잉이나 영상작업에서 만화나 B급 영화의 요소의 영향이 느껴진다. 인상적으로 본 작품이 있다면 말해달라.

만화는 이토 준지의 『이토 준지의 고양이 일기 온&무』와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글리세리드〉, 우스타 코스케의 『빠리리 ~ 붙어봐! 재규어』, 우메즈 카즈오의 『표류교실』, 모로호시 다이지로의 『시오리와 시미코의 파란 말』, 프랭크 밀러의 『씬 시티』 등이다. 영화는 프랭크 헤넬로터의 〈바스켓 케이스〉, 기요로기 폴피의 〈택시더미아〉, 피터 잭슨의 〈고무 인간의 최후〉와 〈데드 얼라이브〉, 제임스 웨일의 〈프랑켄슈타인〉, 에드워드 D. 우드 주니어의 〈외계로부터의 9호 계획〉, 사사키 히로히사의 〈발광하는 입술〉, 안 슈반크마이에르의 〈미트 러브〉, 니시무라 요시히로의 〈도쿄 잔혹 경찰〉, 남내재의 〈신복두신권〉 등이다.



류한솔, 〈버진 로드〉스틸이미지, 2021. 작가 제공.



류한솔, 〈크리크리 메리크리 스마스〉중 일부, 2018. 작가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중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도피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징그러운데 이입이 안 되는 것, 대중 그랬는데 이입이 잘 되는 것, 무서운데 웃긴 것, 웃기는데 무서운 것 등이다.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도피주의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요즘처럼 압박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때, 대중미디어가 대리 제공하는 해방감은 안정을 준다. 이 또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거리감이 나의 영역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가 들어갈 자리, 혹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다.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것과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작업에 관해 얘기해달라.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호그와트 그레이트홀에서 자습하기 ASMR',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가마 할아범의 보일러실 ASMR', '마녀배달부 키키의 빵집 ASMR', '10,000m 상공, 비행기 1등석 ASMR'과 같이 실존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위로를 받게 되는 ASMR 영상물에 관심이 간다. 현실의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결핍된 촉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공간을 초월시켜주는 효과가 중독적이고 매력적이다. 다음 작업은 시각과 촉각, 청각의 맥락이 교차하는 사운드에 더 집중한 ASMR 작업을 연구해보고 싶다.

진행_김신재



류한솔, 〈버진 로드〉스틸이미지, 2021. 작가 제공.

참여작가 치호이

본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달라.

만화와 드로잉, 회화 작업을 하고 책을 출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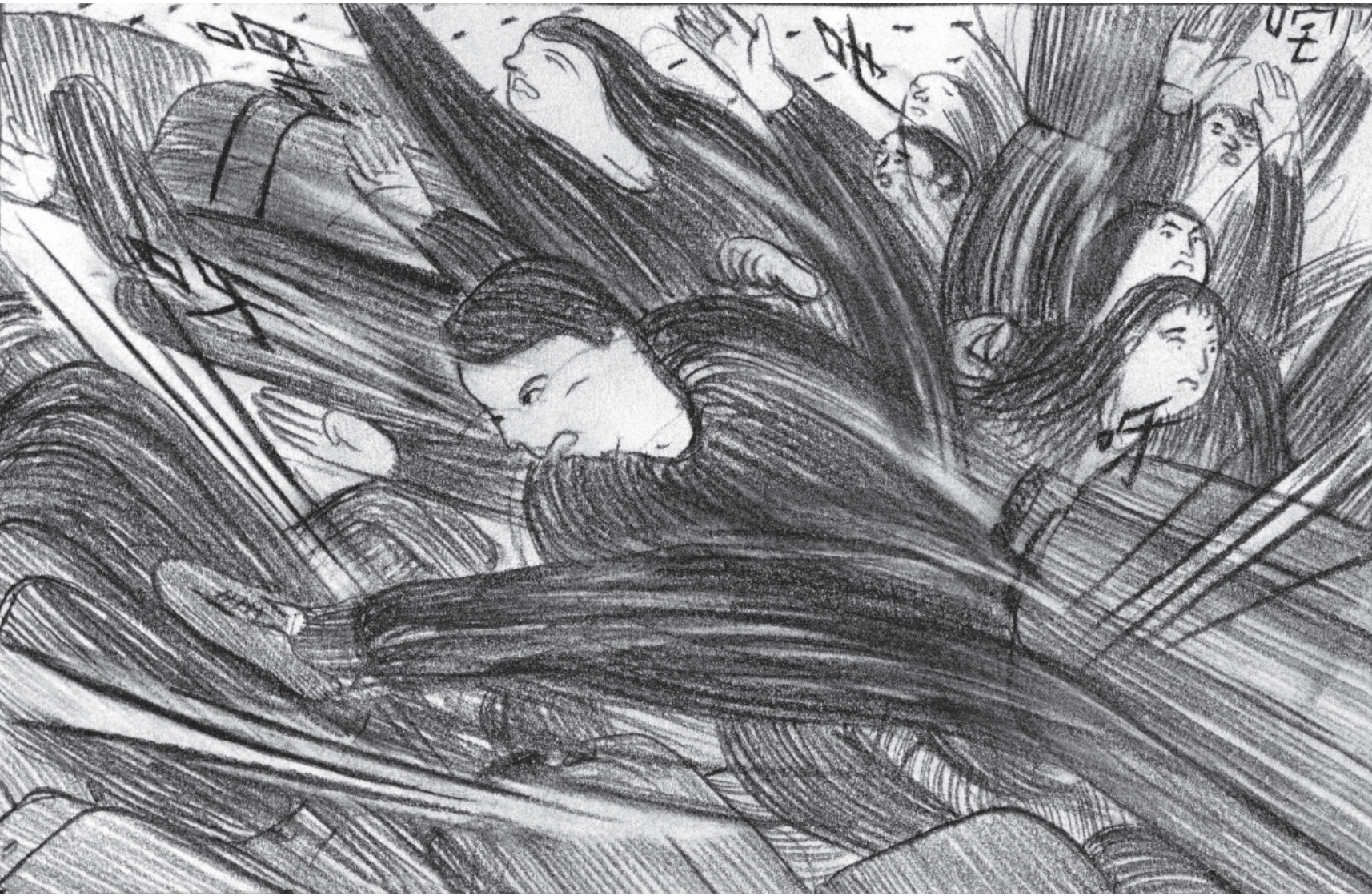
비엔날레 참여작 〈회전목마〉(2014)는 당신의 여러 작업들의 일부분을 조합해 만든 작업이다. 이 조합에서 어떤 연결과 결속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작업의 일부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나?

〈회전목마〉는 2014년도 개인전을 위해 만든 작업이다. 2014년은 홍콩의 정치개혁을 위해 홍콩시민들이 3개월간 도시를 점령했던 '우산 운동'이 한창인 해였다. 나는 정치적 이슈에 관련된 작품을 만드는 일이 드물다. 왜냐면 이러한 일에 대한 내 대응은 항상 느릴뿐더러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과거를 회상하며 단서와 매듭을 가려내는 게 나았고, 그것이 나의 전시 주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홍콩을 생각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지난 세월 동안 그려왔던 만화 작업들을 돌아보며 이미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당신은 홍콩의 빈티지 풍경 사진을 수집한다고 했다. 사진을 작업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감을 받기도 하는 것 같다. 이밖에 풍경 사진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는 바가 있나? 또 최근의 관심사나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실제 사진들을 많이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다양한 웹사이트와 포럼에서 가져온 온라인 사진들이다. 가끔 같은 곳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친 건축 사진을 보다 보면, 그 건축에 대해 꽤 깊이 파고들고 싶어진다. 이 사진들이 도시 배경을 그릴 때는 많은 도움이 된다. 나는 책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밖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다. 책이 주는 아이디어, 내용, 편집, 형태와 형식, 종이의 질, 인쇄된 색감과 질감, 크기와 두께, 그리고 좋은 책을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내게는 가장 큰 영감이다.

참여작가 치호이 자화상 드로잉. 작가 제공.



치호이, 〈회전목마〉 중 일부, 2014. 작가 제공.



치호이, 〈회전목마〉 중 일부, 2014. 작가 제공.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인 '도피주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당신에게 도피주의란 무엇인가?

나에게 도피주의란, 최근 팬데믹에 따른 도시 봉쇄령 하에서 일어나는 전체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라별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규모나 강도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때로 팬데믹에 대한 조치나 정책은 불합리하고 모순적이다. 어떤 나라들은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위험이라고 결정하기도 한다. 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 말이다. 내 생각에 도피주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자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유통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신의 작품은 서울시 곳곳에 퍼져나가 전시될 것이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외에도, 많은 사람이 당신의 작품을 접하게 될 것이다. 작업을 통해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진행_송주연

유통망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유통망은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는 100여 곳에 가까운 거점에서 비엔날레 전시의 조각과 흔적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술관의 테두리 바깥, 도시의 맥락 속에서 전 세계 현대미술 작가들이 전하는 다양한 예술의 언어와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카페, 상점, 문화공간, 도심의 광고판에서 만나는 이 이미지들은, 매일 오가는 장소에서 발견하는 낯선 무언가로 여겨질 수도 있고, 도리어 친숙한 장소이기에 미술관의 작품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유통망에는 서울의 일상 속에서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들이 서로와 교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 서점, 상점, 문화공간 등 다양한 민간 거점이 참여합니다. 현대미술 작품에서 유래한, 40종류가 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이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선보여집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 서울시의 문화기관과 도심 속 미디어캔버스에서도 유통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포스터
- 📺 영상
- 🎧 음원
- 👤 설치작업

※ 관람 및 취취가 가능한 시간은 각 거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 강남구

1

케이팝스퀘어미디어 (미디어캔버스) 📺
강남구 영동대로 511
@cjpowercast_ad_official
- 강서구

2

서울식물원 (공공기관) 📺
강서구 마곡동로 161
@seoulbotanicpark
- 관악구

3

남서울미술관 (공공기관) ☎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seoulmuseumofart
- 노원구

4

북서울미술관 (공공기관) ☎
노원구 동일로 1238
@seoulmuseumofart
- 노원구

5

서울생활사박물관 (공공기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sulm_official
- 동작구

6

PRNT (서점과 상점) ☎
동작구 만양로1길 1
@prntseoul
- 공간인흑석 (서점과 상점) ☎

7

동작구 흑석로5길 94
@spaceinblackstone
- 마포구

8

EP COFFEE N BAR (바와 클럽) ☎
마포구 성마산로29길 40-6
@epcoffeeenbar
- 마포구

9

MO.LAB (문화시설) ☎
마포구 월드컵로10길 9
@molab_official_kaffee
- 마포구

10

고미태 (카페와 식당) ☎
마포구 월드컵로 41
@gomiitae

- 공상온도 (문화시설) 📺

11

마포구 동교로23길 40,
지하1층
@gongsangondo
- 글벚서점 (서점과 상점) ☎

12

마포구 신촌로12길 48
@geulbeotbooks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공공기관) 🎧

13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seoulmuseumofart
- 녹기 전에 (서점과 상점) ☎

14

마포구 백범로 127-24
@before.it.melts
- 더블하모니 (카페와 식당) ☎

15

마포구 동교로 99, C&L 빌딩 101호
@cafe_doubleharmony
- 띠웃 (서점과 상점) ☎

16

마포구 동교로41길 4
@teot_dessert
- 라이즈호텔 (문화시설) 📺

17

마포구 양화로 130
@ryse_hotel
- 먼슬리케이크 (서점과 상점) 📺

18

마포구 서강로11길 9
@monthlycake_
- 번역가의 서재 (서점과 상점) ☎

19

마포구 동교로17길 67
@tlbseoul
- 북스피리언스 (서점과 상점) ☎

20

마포구 연남로11길 34,
지하1층
@booksperience
- 슬런치 팩토리 (카페와 식당) ☎

21

마포구 와우산로3길 38
@slunch_factory
- 식물상점 (서점과 상점) ☎

22

마포구 월드컵로11길 67
@singmulstore
- 연남방앗간 (서점과 상점) ☎ 📺

23

마포구 동교로29길 34
@yeonnambangagan

- 오브젝트-서교점 (서점과 상점) ☎

24

마포구 와우산로35길 13
@insideobject
- 이리카페-상수점 (카페와 식당) ☎

25

마포구 와우산로3길 27
@yricafe
- 책방곰셈 (서점과 상점) 📺

26

마포구 성마산로29길 33
@bookstorethex
- 책방사춘기 (서점과 상점) ☎

27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30
@sachungibook
- 책방연희 (서점과 상점) ☎

28

마포구 와우산로35길 3,
지하1층
@chaegbangyeonhui
- 카페더블루스 (카페와 식당) 🎧

29

마포구 독막로19길 42-18
- 커피랩-본점 (카페와 식당) ☎ 📺

30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4
@coffeelab_hongdae
- 커피랩 익스프레스 (카페와 식당) 📺

31

마포구 홍익로 15
@coffeelab_hongdae
- 콜로라도프로젝트 (문화시설) ☎ 📺

32

마포구 대흥로20안길 20
@colorado_project
- 플랫랜드 (카페와 식당) ☎

33

마포구 동교로17길 37
@flatland_
- 훈고링고브레드 (서점과 상점) ☎ 🎧

34

마포구 잔다리로 130, 2층
@hungoringobread
- 서대문구

35

경성참기름집 (서점과 상점) ☎
서대문구 홍연길 66
@ks.sesameoil_1983

- 폴리 (카페와 식당) ☎

36

서대문구 홍제천로 198
@cafetuuli
- 미네르바 (카페와 식당) ☎

37

서대문구 명물길 20-1, 2층
@minerva_1975
- 미도파커피하우스 (카페와 식당) 📺 🎧

38

서대문구 성산로 317, 2층
@midopacoffeehouse
- 보틀팩토리 (서점과 상점) ☎

39

서대문구 홍연길 26,
지하1층
@bottle_factory
- 생활수집 (서점과 상점) ☎

40

서대문구 연희동 220-20, 2F
@collect.store
- 심두 (서점과 상점) ☎

41

서대문구 홍연길 82, 2층
@simdelung_cookiebar
-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연점 (카페와 식당) ☎

42

서대문구 홍연길 80
@esperanza.roasters
-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은점 (카페와 식당) ☎

43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5
@esperanza.roasters
- 올브레 페르꼬 (카페와 식당) ☎

44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49
@hombre_terco_coffee
- 정음철물 (서점과 상점) ☎

45

서대문구 연희로11길 26
@jungeum.tv
- 초콜릿책방 (서점과 상점) ☎

46

서대문구 연희로5길 46-11, 102호
@chocobookcafe
- 커피랩로스터스 (카페와 식당) 📺

47

서대문구 연희로 52-2
@coffeelab_hongdae
- 성동구

48

다락스페이스 (문화시설) ☎ 📺
성동구 성수이로7길 24, 2층
@darakspace
- 단일서울 (카페와 식당) 📺

49

성동구 왕십리로 66-33
@danil.seoul
- 복식커피 (카페와 식당) 📺

50

성동구 성덕정3길 7-1
@boksic_coffee
- 사계 (카페와 식당) 📺

51

성동구 연무장13길 19
@seasons_kr

- 피노크 (서점과 상점) ☎ 📺

52

성동구 서울숲9길 5, 2층
@finork_official
- 성북구

53

이리카페-석관점 (카페와 식당) ☎
성북구 화랑로32길 111
@yrricafe_seokgwan
- 양천구

54

나무창작소도토리협동조합 (문화시설) 📺
양천구 지양로7길 28-19
@dottori_story
- 용산구

55

MTL-한남점 (카페와 식당) 🎧
용산구 이태원로49길 24
@mtl_cafebakery
- 용산구

56

MTL-효창점 (카페와 식당) ☎
용산구 효창원로69길 25
@mtl_cafebakery
- 고요서사 (서점과 상점) 📺

57

용산구 신흥로15길 18-4
@goyo_bookshop
- 서사, 당신의 서재 (서점과 상점) ☎

58

용산구 대사관로6길 5,
파크랜드빌딩 6층
@seosa_yourlibrary
- 오잇 (카페와 식당) ☎ 📺

59

용산구 신흥로 95, 1층
@oeat.seoul
- 커피주아 (카페와 식당) ☎

60

용산구 청파로71길 16
@ilikecoffeeilikecoffee
- 은평구

61

서울기록원 (공공기관) 📺
은평구 통일로 62길 7
@seoul.archives
- 종로구

62

MK2 (카페와 식당) ☎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7
@cafemk2
- 과학책방갈다 (서점과 상점) ☎

63

종로구 삼청로 10길 18
@galdarbookshop
- 꾸까 (서점과 상점) ☎

64

종로구 율곡로 1, 2층
@kukkakorea
- 다시세운상가 (공공기관)

65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상가
@makercity_sewoon

- 더레퍼런스 (서점과 상점) ☎

66

종로구 자하문로24길 44
@the_reference_shop
- 더북소사이어티 (서점과 상점) ☎

67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2층
@thebooksociety_
- 돈의문박물관마을 (공공기관) 📺

68

종로구 송월길 14-3
@donuimunmuseumvillage
- 라마홀 (서점과 상점) ☎

69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4
@ramahome
- 브람스 (카페와 식당) ☎

70

종로구 율곡로 61, 2층
- 서울역사박물관 (공공기관) 📺

71

종로구 새문안로 55
@seoulmuse
- 식물 (카페와 식당) ☎

72

종로구 돈화문로11다길 46-1
@sikmul
- 인디스페이스 (문화시설) ☎

73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1층
@indiespace_kr
- 인왕산 대충유원지 (카페와 식당) ☎

74

종로구 필운대로 46,
무목적빌딩 4층
@daechungpark_inwangsan
- 전진 문화사 (서점과 상점) ☎

75

종로구 수표로18길 21-4
@jeonjin_moonhwasa
- 종로서적 (서점과 상점) ☎

76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지하2층
@jongnobooks_
- 청음실 (문화시설) 🎧

77

종로구 청계천로 159
@surisuricoop
- 풀무질 (서점과 상점) ☎

78

종로구 성균관로 19, 지하1층
@poolmoojil
- 필운동사진관 (서점과 상점) ☎

79

종로구 필운대로 15
@studiopud
- 종로

80

PER (바와 클럽) ☎
종로 수표로6길 39, 2층
@per_naturalwinebar
- 노말에이 (서점과 상점) ☎

81

종로 마른대로 12, 4층
@normala.kr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미디어캔버스) 📺

82

종로 을지로 281
@ddp_seoul

- 라운드앤드 (카페와 식당) 📺

83

중구 정동길 35
@roundnd_cafe
- 루이스의 사물들 (카페와 식당) 🎧

84

중구 청계천로 172-1, 3층
@louis_collections
- 마이크로릿텐 (문화시설) ☎

85

중구 덕수궁길 9,
현진빌딩 401호
@my.secret.den
- 서울도서관 (공공기관) ☎

86

중구 세종대로 110
@seoul_library
-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미디어캔버스) ☎

87

중구 만리재로 215
- 솔 커피숍 (카페와 식당) ☎

88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4층 라열
- 시민청 (공공기관) 📺

89

중구 세종대로110
@simincheong
- 신도시 (바와 클럽) 🎧 📺

90

중구 을지로11길 31, 5층
@seendosi
- 에어커피 (카페와 식당) ☎

91

중구 서소문로11길 19,
A동 LL층 12호
@aire_coffee
- 우주만물 (서점과 상점) ☎ 📺

92

중구 을지로11길 29, 2층
@cosmoswholesale
- 잔 (카페와 식당) ☎ 📺

93

중구 수표로 52, 3층
@jan_euljiro
- 정동1928아트센터 (문화시설) ☎

94

중구 덕수궁길 130
@jeongdong_1928
- 커피스니퍼 (카페와 식당) ☎

95

중구 세종대로16길 27,
남양빌딩 102호
@koffee.sniffer
- 커피앤시가렛 (카페와 식당) ☎ 📺

96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7층
@coffeeandcigarettes1706
- 커피한약방 (카페와 식당) ☎

97

중구 삼일대로12길 16-6
@coffeehanyakbang
- ※ 이밖에도 대중교통 미디어와 전광판에서도 다양한 유통망 콘텐츠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노선도』 1호: 도피주의

발행
2021년 8월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기획, 집필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편집
이문석

디자인 기획
워크숍스(Wkshps)

운영 대행사
얼트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T. 02-2124-8800
www.sema.seoul.go.kr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2021년 9월 8일 - 11월 21일
서울시립미술관
www.mediacityseoul.kr

폴 파이프, 〈구원하는 자〉 스틸이미지, 2018. 작가 제공



